

PACKAGING NEWS



협회 · 회원사

- (사)한국포장협회 제280차 이사회 개최
- (사)한국포장협회 노사발전재단과 '워라밸 문화 확산' 위해 협약
-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우회
- 플레이어코리아 '지식나눔 2023' 세미나 개최
- 동서식품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확산 위한 MOU 체결
- 롯데알미늄 인천지역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 확장
- 한국컨테이너폴 업체류 출하에 '컨테이너 폴시스템' 도입
- 코오롱인더스트리 고부가 '스페셜티' 석유수지 공장 증설
- 효성 해양 생태계 보전 위해 '블루카본' 사업 추진

업계

- 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일당백 도전' 캠페인 전개
- 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 한국환경공단 완구류 포장폐기물 감축 추진
- CJ제일제당 생분해 소재 포장재 美 FDA 승인
- SK케미칼-코맥스 저탄소 소재 밀폐용기 '에코 클리어' 출시
- 오비맥주 카스 포장에 종이받침대 제거
- 이큐브 콘택트렌즈 전 제품 '비닐 포장 제거'
- 한국콜마 친환경 '종이스티크 용기' 개발

(사)한국포장협회

2023 '포장인 포럼' 성료

'최신 패키징 현안 및 기술동향' 강의 등 '교류의 場' 열려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호텔 5층 루비홀에서 제 5차 포장인 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경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녹록치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회원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업계 최근동향을 나누며 회원사들의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포장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먼저 연세대 서중철 교수는 '최신 패키징 현안 및 기술동향'을 주제로 고차단성 패키징 및 향균성 패키징 기술을 비롯해 바이오플라스틱 이슈와 전망 등 각종 친환경 포장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서중철 교수는 “재활용이나 친환경 포장기술 면에서는 원료부터 폐기까지 순환구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결국 제품 개발을 위해 물리적 특성, 환경적 영향, 법규 등을 고려해 어떤 재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세상에 나쁜 재료는 없다. 다만 잘못 적용된 제품만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무법인 행복 한상욱 대표는 '노동정책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한



▲ (사)한국포장협회는 지난달 24일 포장인 포럼을 열었다. 참석한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



대표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제로 현 사례와 대응방법 등에 대해 전했다.

한편 한국포장협회는 회원사들의 활발한 지식정보 교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1년에 2회 포장인 포럼을 마련하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

제280차 이사회 개최

정부사업 협약 등 사업보고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5월 9일 제280차 이사회를 열고 협회가 추진하는 대정부 사업 등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협회는 협회 경쟁력 강화와 사업개발을 위해 신임이사로 김보철 (주)진명하이텍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사회에서는 2023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과 2023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 및 사업 일정을 보고했다. 또한 회원사 해외 수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튀르키예 유라시아팩 진행 보고, 해외 전시회 참가(이집트, 인도네시아) 보고가 있었다. 지난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인터팩 참관단 파견보고, 제39기 포장기술관리사 교육 과정 진행보고도 이어졌다.



▲ (사)한국포장협회 제280차 이사회가 지난 5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한국포장협회**노사발전재단과 ‘위라벨 문화 확산’ 위해 협약**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핵심 원재료 선제 확보”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이 위라벨(WORK & LIFE BALANCE ·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협회는 노사발전재단과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관한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2년 연속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협회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약 7개월간 회원사를 비롯한 포장업계에 위라벨 인식의 확산과 ‘일터 혁신 종합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협회는 유연근무제(재택·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회원사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협회 관계자는 “포장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자의 유연근로제와 휴식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여건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위라벨 정착과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노사문화 변화를 유도·홍보함으로써 건전한 일·생활 균형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포장협회는 지난달 2일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매년 업종별 사업주단체와 협정을 체결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근무 혁신과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유연근무제 등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

5월 골프동우회 진행

회원간 협력 강화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우회(회장 김보철)는 지난 5월 24일 모임을 갖고 회원 간 협력을 강화했다. 동우회는 회원 간 상생을 위한 교류와 협회 사업 적극 지원을 위해 매월 골프를 통한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김보철 회장은 “동우회를 활기차게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적극 참여와 조언을 부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승 윤석우 대표, 니어리스트 이병찬 대표, 롱게스트 이수현 대표, 행운 이길석 상무에게 돌아갔다. 6월 모임은 오는 28일(수)에 열린다.



▲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우회가 5월 24일 모임을 갖고 회원 간 협력을 강화했다.

플레이어코리아

‘지식나눔 2023’ 세미나 개최

푸드 사이언스와 ‘포장 신기술’ 정보 공유

플레이어 플렉서블 패키징(사장 서영철)이 오는 6월 1일 지식나눔 2023 세미나를 일산 KINTEX(제1전시장 2층 세미나실 210호)에서 개최한다.

식품 패키징은 식품산업의 트렌드가 가장 잘 반영되는 영역이다. 식품 안전과 셀프라이프, 매장 내 진열 효과 등 글로벌 회사들의 식품 포장에는 많은 푸드 사이언스가 담겨 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북미 시장에서는 식품 패키징이 점점 더 고도화·기능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세미나는 30년간 쌓아온 플레이어의 경험과 지식을 국내 기업과 공유하여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직도 해외시장 트렌드와 새로운 기술 및 소재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세미나는 포장은 물론, 마케팅, 디자인 그리고 해외시장 담당자들의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는 2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해외 유명 기업에서 마케팅, 포장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플레이어에서 기술 부문을 담당하는 30년 경력 이상의 강사가 진행한다.

제1부는 북미의 식품 산업 트렌드와 기술 이해를 위한 주제로 ▲육류와 치즈 시장 트렌드를 바꾼 포장 기술 북미 연포장을 중심으로(AI Williams – Flair Technical Advisor, 前 Cryovac Marketing Director) 구성되며 제2부는 북미에 사용되거나 개발 예정인 새로운 기능성 필름을 소개하는 ▲공압출필름을 응용한 기능성 포장(이한일 – Flair 수석 기술 부사장(CTO), 前 Dupont R&D/TS&D Director)으로 구성된다.

플레이어코리아의 윤무성 상무는 “그동안 플레이어는 대한민국 포장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 관

계자들에게 해외의 최신 시장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지식나눔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였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잠시 진행이 보류되었으나 Seoul Food 2023 전시회 참

플레이어 지식나눔 세미나 2023

육류와 치즈 시장 트렌드를 바꾼 포장 기술
- 북미 연포장을 중심으로

AI Williams | Flair Technical Advisor
 통역 진행 前 Cryovac Marketing Director

공압출 필름을 응용한 기능성 포장

이한일 | Flair 수석 기술 부사장(CTO)
 前 Dupont R&D, TS&D Director

일시 2023년 6월 1일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KINTEX 제 1전시장 210호(2층)
 문의 플레이어 코리아 김경민 과장
 신청 5월 26일까지 이메일 신청
 kyungmin.kim@flairkorea.com



스캔해서 이메일 보내기

▲ 플레이어가 6월 1일 KINTEX에서 지식나눔 2023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5.30~6.2 · KINTEX)를 계기로 세미나를 다시 준비하였다. 해외 시장 변화와 새로운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에 식품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고 밝혔다.

세미나 참가와 관련한 문의는 플레어코리아 김경민 과장(kyungmin.kim@flairkorea.com)에게 하면 된다.

한편 플레어는 1992년 캐나다 캘거리에 설립된 연포장전문업체로 포장재의 연구 개발, 생산, 인쇄, 가공 등 포장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전 세계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혁신적인 기술과 뛰어난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캐나다(캘거리), 미국(시애틀, 시카고), 한국(서울, 인천, 평택), 멕시코(과달라하라)에 지사와 공장을 운영 중이며, 아시아와 유럽에 공급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북미 지역 대표적인 글로벌 한인기업이다.

동서식품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확산 위한 MOU 체결

포장박스에 안전문화 메시지 홍보

동서식품(주)(대표이사 김광수)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승준)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동서식품은 5월 3일 업무협약식을 열고, 사회 전반에 안전의 중요성과 안전 중심 문화 확산에 필요한 메시지 전파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동서식품은 커피 제품을 비롯한 여러 제품의 포장박스 겉면에 안전문화에 관한 메시지를 담아 그 중요성을



▲ 동서식품 부평공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광수 동서식품 사장(오른쪽)과 양승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왼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수 동서식품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계획”이라며 “동서식품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일상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알미늄

인천지역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 확장

민·관·학계 뭉쳐 올바른 폐플라스틱 분리배출 문화 조성

롯데알미늄(주) (대표이사 조현철)이 인천지역에서 지자체, 학계 등과 협력을 통해 폐플라스틱 수거 거점 확대 및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장에 나선다.

롯데알미늄·롯데케미칼·인천시 미추홀구·인하대학교·인천환경운동연합·A02는 지난 3일 오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서 롯데알미늄 조현철 대표, 롯데케미칼 최영광 커뮤니케이션부문장, 인천광역시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인하대학교 김웅희 대외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조성을 위한 자



▲ 사진 왼쪽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 에이오투 서혜영 이사, 인하대학교 김웅희 대외부총장, 인천광역시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롯데알미늄 조현철 대표, 롯데케미칼 최영광 커뮤니케이션부문장.



원순환 시스템 운영 및 상호 네트워크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6개 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 업무 협조 및 상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추홀구는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홍보, 캠페인 운영 등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고, 롯데케미칼은 미추홀구 내 분리배출과 수거 체계 구축 및 리워드를 제공한다. 롯데알미늄은 폐페트병 수거기(펏봇) 제작 및 운영을,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자원순환 강사 파견, 수거 거점 관리를 지원한다. 인하대학교는 자원순환 연계방안 연구와 에코서클 기획 및 개발을 지원하고, AO2는 관련 앱 개발 및 운영을 맡는다.

롯데케미칼은 2020년 1월부터 폐플라스틱 수거 문화 개선 및 재활용을 통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Project LOOP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 및 공공/민간시설과 리사이클 원료 소싱을 추진하는 LOOP Cluster(루프 클러스터)의 일환이다.

롯데케미칼은 실제 지난해부터 롯데알미늄·인천교육청·인천환경운동연합과 협력해 2022년 40대, 2023년 23대의 수거기를 인천 지역 학교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추홀구가 구청, 인하대학교, 주민 행정센터 등에 추가로 12대를 설치해 인천지역에 총 75대의 수거기를 운영하게 된다.

인천지역에서 수거된 폐플라스틱은 Project LOOP 소셜벤처 1,2기 기업들과도 연계해 활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롯데알미늄 조현철 대표는 “Project LOOP 일원으로 지역 내 폐플라스틱의 올바른 수거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롯데알미늄은 앞으로도 자원순환 경제 및 ESG 경영 실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Project LOOP는 LOOP Cluster(루프 클러스터) 이외에도 관련 소셜벤처를 발굴하는 LOOP Social(루프 소셜), 롯데그룹 내 리사이클 문화를 확산하고 소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LOOP LOTTE(루프 롯데), 다양한 업계 간 리사이클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한 LOOP Alliance(루프 얼라이언스)로 프로젝트를 확대·발전시켜 실행 중이다.

한국컨테이너풀

업체류 출하에 ‘컨테이너 풀시스템’ 도입

가락도매시장 최초...ESG 실천 물류기기 활성화 시범사업 MOU

한국컨테이너풀(주)(대표이사 서병륜)이 가락도매시장 최초로 업체류(입출기채소) 출하 컨테이너 풀시스템(Pool System, 임대 및 회수 시스템)을 도입한다.

로지스그룹 계열사 한국컨테이너풀(이하 KCP)은 지난달 9일 포천시·경기농협·가산농협·동화청과와 함께 ‘ESG 경영 실천 물류기기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첫 출하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가락도매시장에서 기존 일회용 종이박스 대신 반복 재사용이 가능한 표준 물류기기를 도입해



▲ 한국컨테이너풀이 가락도매시장 최초로 업체류 출하컨테이너 풀시스템을 도입한다.

친환경 물류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매시장에서는 회수 및 관리 문제로 대부분 농산물이 일회용 종이상자나 망 등으로 출하된다. 일회용 포장재는 폐기물로 인해 환경문제 및 물류표준화 저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KCP와 시범사업 참여사들은 첫 출하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농업인-도매시장-

중도매인-소매’ 등 유통 전 과정에서 물류기기 이용 및 회수 진행을 상호 협력한다. 이에 포천시 열갈이배추를 가락도매시장 동화청과까지 출하하는 과정에 KCP 컨테이너를 활용한다.

KCP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매시장에 컨테이너 풀시스템을 도입해 ▲표준 물류기기 사용을 통한 물류비 절감 ▲종이상자 폐기물 감소로 ESG경영 실천 ▲플라스틱 컨테이너 회수 및 관리 ▲하절기 폭염 시 상품 선도 유지 ▲도매시장 물류 표준화 및 하역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도매법인과 협력해 열갈이 품목에 이어 열무, 시금치 품목 등 업체류 물류기기 출하 확대를 추진하면서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고부가 ‘스페셜티’ 석유수지 공장 증설

내년 상반기 PMR 연산 2.1만톤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표이사 김영범)가 고부가가치 석유수지 제품의 생산능력을 확대해 전기차용 타이어 시장을 공략한다.

지난달 15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약 240억원을 투자해 전남 여수공장의 고순도 방향족계 석유수지 (PMR) 생산시설 1만톤 규모를 증설한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현재 1만1000톤의 PMR 생산능력을 2만1000톤으로 2배가량 확충할 예정이다. 코오롱



▲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약 240억원을 투자해 전남 여수공장의 고순도 방향족계 석유수지(PMR) 생산시설 1만톤 규모를 증설한다.

인더스트리는 내년 상반기 증설이 완료되면 PMR 생산능력이 글로벌 1위로 올라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료 수급 안정성과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고부가 석유수지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PMR은 열 안정성과 점착·접착성을 높인 석유수지로 고성능 타이어, 전기 케이블, 위생재 등에 특수 첨가제로 쓰인다. 특히 고무 타이어의 내구성을 강화해 차량의 노면 제동력과 주행 안전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탑재돼 내연기관차보다 약 30% 더 무거운 타이어의 제동력이 중요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전기차 시장 성장과 고성능 타이어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현재 ‘풀(Full) 생산·풀(Full)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석유수지 사업을 총괄하는 박준효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업5본부장은 “고급 차량 중심의 고성능 타이어 시장이 전기차로 확대되면서 고객사 주문에 대응하고자 발 빠르게 생산능력 증강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 1위 석유수지 업체로서 스페셜티 사업을 본격 확장해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수익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효성

해양 생태계 보전 위해 ‘블루카본’ 사업 추진

내년 상반기

효성이 ‘바다식목일’을 맞아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에 나선다.

효성그룹(효성·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은 지난달 1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서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블루카본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효성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탄소중립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



▲ 사진 왼쪽부터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이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생태환경 개선 및 ESG 경영 실천, 잘피숲 블루카본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해양 생태계 보전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청정원

신제품 ‘진주식 비빔냉면’ 출시

감칠맛을 자랑하는 특제 비빔장이 ‘핵심’

대상 청정원이 여름을 앞두고 신제품을 출시했다.

대상 청정원은 목직함 감칠맛과 매콤함이 특징인 ‘진주식 비빔냉면’을 출시했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진주냉면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즐겨 먹던 고급 음식으로 전분과 메밀을 섞어 만든 쫄깃한 면에 해물과 고기 육수를 섞어 깊은 감칠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청정원이 선보이는 진주식 비빔냉면은 새콤달콤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진주냉면만의 감칠맛을 자랑하는 특제 비빔장이 핵심이다.



▲ 대상 청정원이 진주식 비빔냉면을 출시했다.

먼저 마늘, 양파, 고추, 생강 등을 갈아 넣고 쇠고기와 어간장의 풍미를 더해 목직한 고기맛과 깊은 감칠맛을 살렸다. 여기에 청정원 햇살담은 진간장 골드와 순창 진고추장으로 맛의 품격까지 올리며 청정원만의 프리미엄 비빔장을 완성시켰다.

진주식 비빔냉면은 끓는 물에 50초간 면을 삶고 찬물에 행군 후 비빔장과 참기름만 부으면 간단하게 완성된다.

대상 청정원 관계자는 “신제품 진주식 비빔냉면은 평양·함흥냉면 위주의 기존 냉면 간편식들과 색다른 맛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간편식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알미늄

공장, 증평소방서장 행정지도 방문

안전조치 사항 점검 · 위험요인 파악

지난달 10일 충북 도안면 광덕리 도안테크노밸리 (주)한국알미늄(대표이사 김창호) 공장에 한중우 증평소방서장이 방문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 한중우 증평소방서장이 지난달 10일 한국알미늄 공장을 방문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한국알미늄은 냉·난방 등 공조시설 및 라디에이터의 열교환용 FIN재, 전기 및 전자·전선, 내 외장 건축재, 2차전지용 소재 등에 필요한 알루미늄을 생산, 이를 소재로 다양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특히 한국알미늄은 업종 특성상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커 선제적 예방이 더욱 중요한

곳이다.

한중우 서장은 이번 방문에서 최근 화재 사례 안전조치 사항 점검, 다른 위험요인 파악,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방화시설 확인, 자위소방대의 역할 숙지 사항, 관계인 화재 예방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서장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한국알미늄에서 자율 안전관리를 위해 힘써달라”며 “우리 소방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제39차 포장기술인 체육대회 성료

70여명 회원 참석해 ‘화합의 시간’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회장 전헌수)가 제39차 포장기술인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는 지난 5월 20일 경기도 김포 대명초등학교 운동장(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20번길 17)에서 2023년도 춘계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체육대회에 모인 포장기술인들은 축구, 배구, 농구, 족구 등 다양한 종목을 통해 화합을 다졌으며, 경



▲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가 제39차 포장기술인 체육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

기 후에는 각 소속사에서 전달한 다양한 후원물품으로 시상식이 이뤄지는 등 회원 간 정보교류와 친목도 모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체육대회 점심식사는 대명포구에 소재한 청기와횃집(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92번길 39)에서 열렸으며, 2023년 신입 회원 소개 및 회원 간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전현수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회장은 “체육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내년도 체육대회는 회원 여러분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채우겠다”고 전했다.

회원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p>[주]서일 2010년 6월 1일 창립 13주년</p>	<p>신성이노텍(주) 1982년 6월 1일 창립 41주년</p>
<p>[주]필맥스 2003년 6월 1일 창립 20주년</p>	<p>창성엔지니어링(주) 1998년 6월 1일 창립 25주년</p>
<p>[주]에이치피엠글로벌 1984년 6월 19일 창립 39주년</p>	<p>공성기업(주) 1981년 6월 20일 창립 42주년</p>
<p>[주]삼성잉크 1977년 6월 21일 창립 46주년</p>	<p>위더스케미칼(주) 1999년 6월 24일 창립 24주년</p>
<p>태화정밀 1992년 6월 24일 창립 31주년</p>	<p>삼아알미늄(주) 1969년 6월 25일 창립 54주년</p>
<p>[주]케이팩 2008년 6월 25일 창립 15주년</p>	<p>창립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p>

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일당백 도전’ 캠페인 전개

‘일회용품 줄이는 당신은 백점’ 대국민 참여형 실천운동 실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달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 ‘일당백(일회용품 줄이는 당신은 백점) 도전(챌린지)’을 실시한다.

이번 실천운동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일회용품 줄이기를 약속하는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제로 챌린지)’에 이은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약속을 넘어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장바구니 및 다회용컵 사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촬영하여 필수 해시태그(#일당백챌린지 #1회용품없는날 #환경부)와 함께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재하고, 게시물을 양식에 맞춰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매달 10일부터 일주일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자세한 방법은 환경부 사회관계망 서비스(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달 10일을 ‘일(1)회용품 없는(0) 날’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만큼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더 노력하고, 실천을 반복하여 생활화하자는 취지다.

환경부는 실천운동 주제(줄여야 할 일회용품)를 매월 선정해 사전 공개할 계획이다. 5월 주제는 ‘일회용품’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일회용기를 줄이고자 선정됐다.

6월은 일회용컵, 7월은 비닐봉투를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쉽게 쓰고 쉽게 버려짐으로써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며 “조금 불편하지만 나와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681개 품목 차등공급비율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2023년 기준 2만810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인 10%를 적용하지 않는 차등적용 대상과 대상별 차등 적용 비율을 정해 ‘2023년 소량



▲ 식약처 전경.

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한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을 차등 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소량포장공급 대상 의약품 총 2만810개 품목을 공고해 업계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681개 품목의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3~8%로 조정했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제도의 투명성·일관성을 높이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공급대상 품목 선정'부터 '사후조치'까지 업무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업계가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제약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수요를 충실히 파악함으로써 소비자 의약품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업계에서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환경공단

완구류 포장폐기물 감축 추진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욱)과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소재규)은 완구류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포장재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4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서 내용에 따라 ▲자원순환분야 전반 법령·제도 등 관련정보 제공 ▲재활용·친환경포장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행정 지원 ▲완구산업 국내외 동향 및 통계 등 관련 정보 공유 ▲회원사의 자원순환제도 성실 이행을 위한 노력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자원 선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의지와 공감대에서 비롯됐으며 협약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공단은 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최신 자원순환 제도설명회 및 회원사 맞춤형 포장 컨설팅을 함께



▲ 한국환경공단 정재웅 자원순환본부장(왼쪽)과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소재규 이사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정재웅 자원순환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다른 산업계에 귀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발생단계의 폐기물 감축이 필수적이며 공단은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 앞으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

생분해 소재 포장재 美 FDA 승인

북미 시장에서 생분해 소재 사업 확대 계기 마련



▲ CJ제일제당은 자사 생분해 소재 PHA가 미국 FDA 식품접촉물질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자사 생분해 소재 PHA(미생물이 식물유래 성분을 먹고 세포 안에 쌓아놓는 고분자 물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식품접촉물질(FCS)로 승인됐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PHA는 토양과 해양을 비롯한 대부분 환경에서 분해돼 생활용품 포장재, 화장품 용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 소재다.

이번에 승인된 제품은 CJ제일제당이 상업생산중인 비결정형(aPHA)으로, 고무와 같이 부드러운 물성을 지녀 포장재나 비닐봉투 등 변형이 필요한 여러 품목을 만들 수 있다.

이 소재는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FDA의 식품접촉물질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포장재에 활용할 수 있는 물질로 등록돼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식품접촉물질 승인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인 북미 시장에서 생분해 소재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CJ제일제당은 연내 반결정형(scPHA) 소재에 대한 식품접촉물질 승인도 추진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FDA의 식품접촉물질 승인을 통해 미래 소재인 PHA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PHA의 유용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와 밀접한 다양한 분야로 활용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케미칼-코맥스

저탄소 소재 밀폐용기 ‘에코 클리어’ 출시

SK케미칼 친환경 바이오 소재 ‘에코젠 프로’로 제작



▲ SK케미칼 에코젠 소재로 만들어진 밀폐용기

SK케미칼이 코맥스산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소재가 쓰인 밀폐용기 ‘에코 클리어’ (ECO CLEAR)를 개발했다.

SK케미칼과 코맥스산업은 SK케미칼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 ‘에코젠’ (ECOZEN) 기능을 강화한 신소재 ‘에코젠 프로’ (ECOZEN Pro)로 제작된 밀폐용기 ‘에코 클리어’를 출시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에코 클리어는 SK케미칼의 에코젠 소재로 만든 투명(CLEAR)한 용기란 의미로 제품 특징을 그

대로 제품명에 담았다. 유리의 투명함과 깨지지 않은 플라스틱의 장점을 결합한 에코 클리어는 실리콘 패키징을 제외한 몸체 · 뚜껑 · 손잡이까지 모든 부분이 에코젠으로 만들어져 어느 각도에서 봐도 용기 내부 내용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에코 클리어에 사용된 에코젠 프로는 기존 소재보다 내충격성 등이 향상된 소재다.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고 있는 비스페놀A(BPA)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같은 성분 검출 우려가 없고 내열도 · 내오염성 · 내화학성이 우수해 산도가 높은 김치 · 향신료나 기름진 식자재를 오래 보관해도 냄새 배임이나 변색되지 않는 동시에 식기세척기 같은 사용 환경에서도 변형이 없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타 플라스틱 대비 약 1/3 수준의 낮은 탄소 배출 효과로, 에코 클리어 3.3kg를 사용하면 나무 2/3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에코 클리어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코맥스몰은 물론, 백화점·이마트를 포함한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코맥스는 밀폐용기와 고무장갑, 물병, 텀블러 등을 생산·판매하는 52년 전통의 주방·생활용품 전문기업으로 이번 협업 외에도 텀블러, 냉장고용 물병 등 SK케미칼과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응수 SK케미칼 그린소재사업본부장은 “플라스틱 온실가스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소재에 대한 국내외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에코 클리어 개발을 바탕으로 에코젠의 우수성을 소비재에서 다양한 산업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

카스 포장에 종이받침대 제거

간 종이 사용량 687톤, 탄소 배출량 662톤 감축

오비맥주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카스 프레시 캔 전 상품(355ml, 500ml) 포장에 종이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난 4월 25일 밝혔다.

주류업계에서는 맥주 포장 시 묶음(번들)에는 제품을 받치는 종이 받침대를 사용하는데, 이 받침대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오비맥주 관계자



▲ 오비맥주는 카스 프레시캔 전 상품 포장에 종이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는 “포장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와 종이를 줄이기 위해 ‘노 트레이’ (No Tray) 패키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오비맥주는 노 트레이 패키지 적용으로 연간 종이 사용량을 약 687톤 줄이고, 탄소 배출량은 약 662톤 감축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오비맥주는 앞으로 대형마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는 카스에도 노 트레이 패키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버드와이저와 호가든, 스텔라 등 수입 맥주 브랜드의 편의점용 330ml 캔맥주 포장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오비맥주는 2025년까지 맥주 제조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 배출량을 25%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큐브

콘택트렌즈 전 제품 ‘비닐 포장 제거’

비닐 포장재 제거로 연간 약 10톤 비닐 감소 기대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의 콘택트렌즈 브랜드 아큐브가 콘택트렌즈 패키지 비닐 포장재를 전면



▲ 아큐브가 제품 패키지 비닐 포장재를 전면 제거한다.

제거하며 친환경 활동을 시작한다.

최근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포장 다이어트 등 ‘필(必)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콘택트렌즈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아큐브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콘택트렌즈 전 제품의 패키지 포장 비닐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아큐브는 패키지에서 비닐 포장재가 제거된 콘택트렌즈 제품을 순차적으로 유통할 예정이다.

이 같은 포장 간소화를 통해 비닐을 제거할 경우, 연간 약 10톤의 비닐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패키지 포장재 제거로 인한 기존 소비자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패키지 변경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한다.

먼저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포스터를 안경원에 비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비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큐브의 친환경 행보를 알릴 계획이다.

아큐브 패키지 포장 간소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큐브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지운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 아큐브 마케팅 팀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필환경 트렌드가 지속됨에 따라 아큐브도 비닐 사용량 감소에 동참하고자 이번 패키지 포장 간소화를 진행하게 됐다”며 “향후 2~3년간 기존 유통된 비닐 포장 제품과 비닐 포장이 없는 제품이 혼재하겠지만, 환경을 위해 시작한 아큐브의 친환경을 향한 변화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국콜마

친환경 ‘종이стик 용기’ 개발

3년 만에 ‘친환경 패키지’ 선보여...

한국콜마는 비(非)목재 종이로 만든 스틱형 화장품 용기를 개발했다고 지난 4월 27일 밝혔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종이튜브에 이어 약 3년 만에 이뤄낸 친환경 패키지 연구개발 성과다. 종이стик은 립밤, 멀티밤, 선스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로 대체한 친환경 화장품 용기다. 제품을 고정하는 뒷마개를 제외하면 전부 종이로 구성됐다. 뒷마개도 종이성분을 51% 포함시킨 HDC현대EP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였다. 이를 통해 기존 스틱형 용기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86% 가량 감소시켰다.

핵심 몸체는 비(非)목재 종이 미네랄 페이퍼(Stone Paper)를 활용했다. 미네랄 페이퍼는 채석장이나 광산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돌로 만든다. 폐기 시 빛에 의해 자연분해 되어 원래의 형태인 돌가루로 돌아가는 친환경 소재다. 내구성과



▲ 한국콜마가 개발한 비(非)목재 종이로 만든 스틱형 화장품 용기.

내수성이 높아 쉽게 찢어지지 않고 방수·방습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 종이 1톤을 미네랄 페이퍼로 대체하면 나무 20그루, 물 2만8000L를 절약 할 수 있어 더욱 친환경적인 소재로 알려져 있다.

종이스티크는 누구나 사용에 익숙한 종이말이 색연필 사용 방식을 적용했다. 어린 시절 갖고 놀던 색연필처럼 화장품도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또한 제품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 장점도 갖췄다.

한국콜마는 고객사 제안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콜마가 2020년 업계 최초로 상용화한 종이튜브는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한 캡을 제외한 본체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80% 줄인 친환경 화장품 용기다. 최근에는 다양한 용량과 제형을 담을 수 있는 3가지 종류의 종이튜브도 추가 개발을 완료해 출시할 예정이다.

LGU+

포장용품 모두 친환경 소재 쓴다

패키지 방문설치 시 기사가 친환경 소재 사용 안내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택배 상자, 매장 쇼핑백, U+tv 셋톱박스과 와이파이(WiFi) 공유기 등 홈 상품 패키지를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고 지난 4월 26일 전했다.

LG유플러스는 패키지가 온오프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경험하는 ‘고객 여정 시작점’이라 정의하고, 상품 구매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앞서 자체 고객 대상 디자인 수용

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많은 고객들이 화려함 보다 소박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디자인에 친환경 소재로 만든 패키지를 원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LG유플러스는 홈 매니저(설치기사)가 직접 고객 집 안에 설치하는 제품은 물론 고객들이 직접 구입해 포장을 뜯는 제품까지 전체 패키지를 친환경 소재인 재활용 종이로 제작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도 적용했다. 유플러스닷컴에서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을 주문할 경우 고객이 받는 택배 상자는 외관에 운송장과 비닐테이프가 붙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에 새로 만든 택배 상자는 재활용 종이로 만든 박스에 LG유플러스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라벨이 붙어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라벨이 손으로 잘 떼어지고, 택배송장도 함께 떨어지게 만들어 박스 재활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게 디자인됐다고 설명했다.

홈 매니저가 집 안에서 U+tv와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방문설치패키지’에는 고객이 패키지를 뜯기 전에 친환경 소재로 제작했음을 안내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모든 패키지에는 초록색으로 ‘LG유플러스는 친환경 종이와 잉크를 사용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밖에도 LG유플러스는 지난해 LG화학과 협력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소재로 만든 U+tv 리모컨을 출시하는 등 제품 전반에 친환경 경영을 확산하고 있다.

김지혁 LG유플러스 LSR·UX센터장은 “고객에게 LG유플러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고객 경험 혁신 사례라고 생각해 친환경 패키지를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